



질문하는 아이, 대답하는 부모

알렉스 맥팔랜드 지음 | 유정희 옮김 | 생명의말씀사

이 책 표지에는 “부모의 준비된 대답이 아이의 평생 신앙을 결정한다.”는 도전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신앙의 궁금증을 묻는 아이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권면한다.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 아이의 평생 신앙이 결정된다니?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부모,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 대안학교 교사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보기를 권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알렉스 맥팔랜드(Alex McFarland)이다. 그는 2006년 노스캐롤라이나 남부 복음주의 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의 총장을 지냈으며, 20여 년간 어린이, 청소년, 부모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에 대해 가르쳐왔다. 그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 탐구하기>(Exploring the Word)라는 청취자 전화 참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십년 넘게 진행하고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과 변증에 관한 미국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진리>(Truth for a New Generation)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는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오랜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오늘날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성경, 기독교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원제는 ‘21 Toughest Questions Your Kids Will Ask About Christianity’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21가지를 선별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게 되나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는 너무 지루해요. 꼭 가야해요?’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은 질문해봤을 만한 것들이다. 이 질문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 삼위일체와 성령에 대한 질문들, 성경에 대한 질문들, 교회에 대한 질문들 5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각 장은 질문과 관련하여 성경이 아닌 책의 짧은 인용구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01 하나님은 왜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세요?’라는 질문을 다루는 장에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의 “왜 하나님은 마귀를 죽여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실까?”라는 문장을 인용함으로 시작한다. ‘02 하나님은 왜 고통이 존재하게 하십니까?’에서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 나온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듣지 못하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이 확성기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외에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파스칼의 『팡세』, 찰스 웨슬리의 노래, 도스토옙프스키의 말등을 인용함으로써 신앙적인 질문들이 세상의 이야기, 문화들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임을 던지시 알려주고 있다.

각 장의 구성은 동일하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찾아가면서 어떤 장에는 질문과 관련해 학생들과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액티비티), 예를 들어 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설탕실험(32p),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부활절 빵만들기(87p), 가족 신앙고백문 만들기(112p)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장에는 C.S. 루이스 같은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들의 아이디어(128-9p)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또 어떤 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 예를 들어 종말(135쪽), 휴거(142쪽), 삼위일체(154-155쪽) 등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고, 친절하게 정리해준다. 각 장의 구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핵심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질문과 대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준다. 특히 “희망을 담은 대답”에서는 불확실한 이해로 인한 의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확신에 이르도록 돕는다.

이 책의 유익 중 하나는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시각교육의 예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묘사와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예수님의 설교 방법과 유사하다. ‘말씀의 시각화’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유명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도 『내 영혼의 자서전』에서 본인의 영성훈련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맥그라스는 “시각화된 말

씀은 우리의 믿음을 밝혀줌과 동시에 그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움을 다만 얼마라도 맛보게 해준다.”(알리스터 맥그라스, 2011: 50)고 말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우리 아이도 5살 때, 교회학교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라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같아요?”라는 어려운 질문을 했던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속으로 ‘아! 아이들도 삼위일체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구나. 단순하지만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구나!’라고 적잖이 놀랐다. 그 당시 나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아이에게 친숙한 것, 물의 3가지 형태, 수증기, 물, 얼음에 비유해서 설명해주었다. 아마 이 책을 먼저 읽었었다면 ‘3화음’으로 보다 바른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맥팔랜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삼위일체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본성을 묘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흐린다고 지적한다. 그는 물(물, 얼음, 수증기), 세 잎 클로버(아버지, 아들, 남편), 달걀(껍질, 노른자, 흰자)에 관한 예화들이 모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심스럽게 3화음의 예를 추천한다. 3화음에서는 각 음이 분명하지만, 그 음들이 서로 섞이면 독특하고 식별할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 낸다. 그 소리는 각각의 음을 따로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각 인격은 분명하지만 같이 합쳐지면 개별적인 세 인격과 구별되는,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153p).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는 진리를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맥팔랜드는 프롤로그에서 영적질문에 답할 때는 혼자서 말하는 것보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한다. 혼자서 말을 하면 잔소리

로 여기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배운 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며, 가장 좋은 대화법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제안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질문에 다시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도록 촉진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보다 깊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으로 질문자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셨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 단순한 답을 곧바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 뒤에 숨은 질문을 파악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니?”, “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어디서 찾은 거니?”, “너의 질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네가 아는 성경 이야기들과 비슷하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등 다시 (열린)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 거짓된 생각은 드러내어 바꾸도록 도와 단순한 사실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닌 강한 확신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신앙교육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책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 ‘나는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다’라는 식의 개인적인 ‘경험’ 위주의 간증서적, 여러 기독교 교육 ‘이론’들이 나열된 이론서적,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짧고 단편적인 ‘실제적이고 실용적 지식’이 담긴 워크북 등.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각각의 책이 서로 다른 유익을 주는 것은 맞지만, ‘신앙교육’ 내지 ‘기독교 교육’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균형 잡힌 가이드북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만 나열하지 않는다. 말씀을 기본으로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정체성, 그에 따른 책임, 세상 돌봄, 복음 전파와 같은 행동의 변화도 추구한다(143p). 저자는 이 책 전체에서 매우 진솔하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단정적이지 않은 열린 태도를 취하고,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종말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등에 관한)에 관해서는 이단과 타세계관과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태도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는 것은 부모됨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야 일주일에 두 시간에 불과하다. 이 나머지 시간들은 다른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다. 홈쇼핑을 본 적이 있는가? 쇼호스트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게 된다. 묘한 조장에 ‘미혹되어’ 마지막에는 ‘스스로’ 쇼호스트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모든 홈쇼핑 소비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예로 든 것은 불필요한 소비이다.)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가정에서 신앙에 관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는 것은 마치 6일 내내 홈쇼핑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이 없는 이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텍스트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대가 모이는 공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린다거나,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를 한다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글 | 정문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연구원. 현재 파주 주 사랑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세계관학교 팀장으로 3년째 섬기고 있으며, 부모들과 함께하는 독서모임도 갖고 있다.